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 열려

6월 28일(화)~7월 1일(금), 충현기도원에서

대학부, 하기 수련회
7월 4 - 8일, 충현기도원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가 6월 28일(화)부터 7월 1일(금)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리게 된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개최일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110명의 농어촌목회자의 참가신청이 확정된 상태이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개척, 교회지원, 농어촌전도대 파송 등으로 농어촌교회를 도와왔고, 1972년에는 농어촌교사(평신도)들을 초청하여 훈련시켜오던 중 농어촌목회자 초청훈련을 겸해 오기도 했었다. 그동안 당분간 중단됐던 것을 금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농어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이번 기회를 통하여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훈련을 받는 기회로, 죽어

가는 토양 오염되어 가는 바다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리려는 그 방법과 원리를 찾는 기회로, 또한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농어촌에 대하여 같은 마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농어촌 지역의 성장과 복음전도, 농어촌 살리기 운동과 지역향상 개발, 도시 교회와의 연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저녁의 부흥회, 오전에 특강, 오후에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하며 레크레이션과 특별휴식시간 등을 배정해서 영육간에 휴식과 재충전이 되도록 세밀한 배려를 했다.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중강예배 설교), 당회장 신성중 목사(개강예배 설교 및

특강/ 교회 성장의 길), 임석영 목사(고덕중앙교회 담임, 지역부흥회) 등이며 농촌사역 전문가들이 주로 특강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분임토의는 「농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의 역할」, 「농어촌의 현실과 복음전도」로 정했다.

대학부 하기수련회가 7월 4-8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급변 수련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전체를 보는 안목을 도와줄 계획이다.

주강사는 대학부지도 장봉생 목사,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특강시간을 인도한다. 대학생단기 활기있고 유익한 프로그램과 학생자체가 운영, 진행하는 '선택식 특강' 등이 있다. 주제는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인터뷰 /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

18년간 박토의 일본 땅에서 귀한 사역 감당



우리 교회의 평신도 선교사 1호인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가 친지 방문차 귀국했다. 잠시 만나 그의 평신도 선교사 생활을 알아 보았다.

▷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받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 1976년에 파송받았으니깐 18년 됩니다. 그 당시 파송은 받았지만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역할이나 사명 등을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지도도 없었고 그러나 어쨌든 전도를 해야 한다고 사명감만 있었지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의 관계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일하다가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에 접목시켜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그동안 일본생활은 어떠했습니까?

▶ 처음에는 廣尾町立病院 外科과장으로 부임했지요. 그곳에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를 만나 그들과 협력해서 전도활동을 했지요. 열매가 생기면 그곳의 교회에 연결시켜주곤 했지요. 그곳에서 5년 정도 있다가 堺市立診療所로 가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본 교단에 소속된 일본인교회와 손잡고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堺市立診療所에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교회를 정하고 출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와 연결시켜 교회에서 양육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 18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 일본은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나 73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때까지 계약을 연장해서 일했고 75세가 되는 지난 3월말까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계속 있다가 지난 5월 30일 후임자가 결정돼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기에 새로운 자리를 찾아 보던 중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5포로 근처에 노인건강센터에 관리의사로 발령을 받아 6월 28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외제할 곳 없는 노인들과 뇌졸중, 노인성치매 환자 등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합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면으로만 봤던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와 아내 유은호 권사 내외분을 만나네 정말 감회가 깊고 반가웠다. 일본에서의 전도사역은 누구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유병세선교사 부부는 18년 동안 정실하게 일을 해왔다. 그리고 꽤 많은 열매를 얻었다. 사람들은 이제 쉬라고 한다. 목사, 강로도 70세면 정년인데 그만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만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도 들지만 불쌍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차단고 있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에 자꾸 눈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충현교회의 그 힘있는 기도원의 자원이 있는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열매있는 사역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계속하려고 한다. 교인들의 기도, 김창인 원로 목사의 사랑, 늘 교회에서 보내주는 충현의 만나, 당회장 목사의 설교 테이프, 주간충현 등이 큰 힘이고 은혜라고 말한다. (형)

44 예수사랑큰잔치

태신자카드 작성 및 제출방법

전도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사전에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태신자카드를 작성합니다. 태신자 카드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6월 26일) 배부되는 태신자 카드를 각자 지니고 있다가 7월 1일(금)과 8일(금) 구역예배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작성합니다.

· 태신자란 무엇인가?

태신자란 '믿음과 기도로 마음에 잉태한 전도 대상자'란 뜻입니다. 여기에는 잃은 양에 해당되는 장기 결석자, 가족 중 교회 불출석자, 접촉점 편지를 통해 연결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모든 수신자들이 포함됩니다. 사실 접촉점 편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아직 마음 문이 닫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마음문을 두드려 열게 해야 합니다.

· 어떻게 태신자 카드를 작성할까요?

- ① 백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전도해야겠다고 생각나는 이름들을 적어 봅니다. 나의 가족, 직장 동료, 학급 급우, 이웃의 사람, 불신자 중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대상으로 믿고 이름을 적어봅니다.
- ② 이름이 기록된 카드 중에서 교회 보관용은 구역장을 통하여 교회에 제출하고 개인 보관용을 성경책에 끼워 늘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교제합니다.
- ③ 영혼을 향한 공허한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말씀을 날마다 외우며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실천합니다.

· 작성된 태신자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 ① 오늘(6월 26일) 배부된 태신자 카드는 7월 1일과 8일(금) 구역예배시 함께 모여 기도하여 작성합니다.
- ② 작성된 카드는 구역장에게 제출, 구역장은 주일날 교역자에게 제출합니다. 그 후에 작성된 카드도 마찬가지로 교역자에게 제출합니다.
- ③ 작성된 카드의 보관용은 개인이 갖고 계속 기도하며 7월 10일 그리스도의 관자 제1산을 일제히 보냅니다.
- ④ 그 밖에도 주보나 주간충현, 각종 전도지, 설교 테이프 등을 전달하며 선행에 힘쓰고 인격적인 교류를 가져 믿음을 증진합니다.

기독교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듯이, 기독교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 바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 가상칠언과 그 영적 교훈

(1)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최초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2)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이 말씀은 회개하는 오른 쪽 강도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힘들어도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 19:26) "보라 네 어머니라" (요 19:27). 이 말씀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효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자리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효도를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신자들이 될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생기고, 가정이 건전해지고 사회가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 27:46).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에서 오는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5)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하나님 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6) "다 이루었다" (요 19:30). 이것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상사역을 완성시켰음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사역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7)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이것은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파치 어린아이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듯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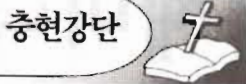
(8) "다 이루었다" (요 19:30). 이것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상사역을 완성시켰음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사역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2.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

첫째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에 일어났습니다(마 27:51).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제단에 일어나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씩 속죄일에 들어갈 뿐, 평상

시에는 못들어 갑니다. 평민들은 더군다나 그곳에 못들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마 27:52). 이것은 부활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무덤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열려진 무덤들이 있습



그리스도의 죽음과 표적

(마 27:45 - 56)



신성종

<목사·당회장>

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모두 다 부활합니다.

셋째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54절).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뒤우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신앙교육은 성경의 사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서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데 멈춰서는 안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성경공부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3. 십자가의 결과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

(1) 십자가의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일곱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수치(요 19:13)로 인하여 성도들이 영광(롬 8:17, 18)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수고(마 27:31-44)로 인하여 성도들은 안락(마 11:28)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슬픔(마 26:38)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기쁨(요 16:20, 22)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심(마 27:46)으로 성도들은 구원(행 16:31)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이 저

주를 받으심(갈 3:13)은 성도들의 축복(갈 3:9)이 되었습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이 피흘림(요 19:34)을 당함으로 성도들은 사죄함(히 9:22)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곱째로 예수님이 죽음(요 19:30)으로 성도들은 영생(요 3:16)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 주변 사람들의 반응

첫째로 오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47절). 둘째로 동정하는 자가 있었습니다(48절). 셋째로 냉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49절). 이들은 구원의 기적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냉담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실망하면 안됩니다.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넷째로 애를 태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55절). 멀리서 바라보며 애를 태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를 태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직접 그 일에 뛰어

들어 희생하고,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다섯째로 고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킨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

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냉담하는 자도 있고, 오해하는 자도 있고, 동정하는 자도 있고, 애를 태우는 자도 있고 고백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냉담하고 오해하는 자가 있어도 개의치 말고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타우거나 동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최종목표요, 기독교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신앙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실패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4. 백부장처럼 고백하는 교회의 사명

첫째로 천국일꾼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충현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천국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흘리개 어린 생명들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됩니다. 그 코흘리개 가운데는 제2의 김영삼 장로님과 같은 인물도 있을 것이고, 제2의 김창민 목사님과 같은 인물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을 하실 때마다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일꾼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일꾼을 키우는 자의 자격은 먼저 하나님의 사명(calling)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성령의 은사(gifting)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된(training) 자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란 일반적으로 국내의 전도를 말하고,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도하고 무엇을 선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기독교의 두 기둥에 빠져서 다른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셨습니다. 믿음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독교의 두 개의 기둥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부여잡고 백부장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오해하거나 냉담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동정하거나 애를 태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겪은 6.25

생각하기도 싫은 전쟁의 무서움

이 형 주
(권사, 제17교구)

내 나이 14세, 국민학교 6학년, 아주 작고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느날 시골에 살던 제가 산과 들을 건너서 학교에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학교를 향해 삼분의 이쯤 가노라면 저수지를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길에서 놀랍게도 군복을 입은 인민군 아저씨가 모자를 벗어든채 정신없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인가 보니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이창수라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얼마전에 인민군으로 끌려 갔잖아요?” 그 아저씨는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뻐는지 아저씨도 친구도 뒤로한채 학교에 가던 내가 정신없이 그 높은 산을 한 순간에 뛰어넘어 집에도 가지 않고 우리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우리가 이겼어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부들 부들 떨면서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미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조용히 못해? 너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 때에 인민군으로 억울하게 끌려 갔던 이창수라는 아저씨가 나타나 그 소식을 알리자 순식간에 온 마을 사람들이 구석에서 다 모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신반의 아직도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인가봐’ 하면서 나에게 모든 시선이 주목하면서 ‘저 어린 것이 얼마나 기뻐하면 그렇게 뛰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내 발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벗어보니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고 얼마나 뛰었던지....

지금 생각하면 14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히고 피가 맺었으면 그렇게 극성스럽게 뛰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요. 나는 어릴 때 충남 부여군에서 살았는데 서천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모부 한 분은 동생이 경찰이라고 찾아내서는 산으로 끌고가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서천농협 창고에 예수 믿는 자, 돈 많은 부자들, 경찰 가족들, 정치인들 수 많은 사람들을 그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러 재가되어 누구의 시체인지 찾을 길이 없는 비참한 광경이었으며 깊은 우물 속에 사람을 한없이 집어 넣고 젖을 담듯 뚜껑을 덮었던 일, 교회를 인민사무실로 차려놓고 신발을 신고 드나들던 일(그 당시엔 신을 벗고 성전에 들어갔음)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너무 어릴 때 기억이지만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목사님과 항상 심방다니신다고 전도부인이

라고 서류를 꾸며 다음날이면 지사로 넘어갈뻔한 일, 학교에서 되돌아오던 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아침조회시간에 음료수에 독약을 타서 먹이려고 준비가 다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2-3일만 늦었으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유없이 죽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서에 팔려가 1주일 수감되었던 후였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께서 1주일 동안 10여리길을 아버지 식사를 날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평소에 우리 덕을 제일 많이 보고 도와주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니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고 상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안도의 숨을 쉬고 있던 1주일 후 마을 뒷산에서 이북에서 넘어온 인민군 12명이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징을 울리고 순식간에 모여 그 산을 포위했지만 무기를 가진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인민군들은 산으로 도망갔다가 더이상 견딜 수 없어 내려온 것입니다. 포위만 하고 이쪽에서 움직이지 않자 은은한 찬송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 믿는 군인이구나’ 하고 이쪽에서도 ‘찬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신호를 보내니까 그제야 두손을 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을 생포하여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도망할까봐 세워 놓은 채 허리에 새끼줄로 사람을 엮어 한줄로 끌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에 앉혀놓고 한쪽에서는 땅을 보고 한쪽에서는 지사로 연락하여 경찰이 오도록 해놓고 그들의 고향 배를 마음껏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니 17-18세 20세 미만 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북에서 강제징집을 당한 것이지요.

그중엔 목사님 아들 1명, 장로님 아들 1명, 나머지도 반수 이상이 믿는 집 아들 이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마치고 법대로 경찰서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후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는지 생사를 모르지만 오래전까지 교회로 그때 고마웠다는 편지 연락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당들이 지배할 때 나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불은 세력들에 춤을 추고 인민의 노래를 가르치고 따라부르는데 우리 친구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철이 없어일까 아니면 너무 어리니까 몰라서였는지 나만 유일하게 고집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밤마다 모여서 인민의 노래를 배우는 데도 가지 않자 친구들이 쳐들어와서 할 수 없이 끌려가곤 했습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 동산은 금의 자원도 가득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이 노래가 아마도 이북의 애국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44년전에 불렀던 노래가 얼마나 귀가 아프고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던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답집이 없어지고 공과책이 나왔지만 그 때 당시 주일학교에서는 초학문집 요리문답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를 시작하여 묻고 대답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주일학교에서 가르침을 통하여 불의한 자리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앙이 어린 가슴에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식구들은 한 생명도 다치지 않고 잘 자라서 딸 셋이 다 권사직분을 받아 교회에

서 충성하고 아들 셋중 둘은 집사 한 사람은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80세로 새벽예단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주일날 일부 성가대에서 봉사하십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치신 신앙교육은 첫째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일을 성수할 것, 두번째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잘 섬길 것, 세번째 구제를 하려거든 아무도 모르게 할 것 등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나도 자녀들에게 물줄이 아닌 신앙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버가 자식을 자식인 아버를 죽는데 내어 주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곧 그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신앙교육을 시켰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안되는 두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전쟁중에서도 나라끼리의 전쟁보다 가정안에서의 전쟁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겪은 6.25를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때의 체험담을 그대로 적어 봅니다.

이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경다비

저도 데려가 주세요

장 봉 생(목사, 대학부 지도)



요즘 대학생들은 바쁘다. 수년 전에는 정부나 학교를 상대로 시위하고 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괜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아주 극소수 학생들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 대다수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다. 해가 거듭될수록 습득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국가 경쟁력이라 하여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을 요구한다. 자격증 취득하라, 어학 공부하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이다.

기독교 대학생들은 더 바쁘다. 다른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더 공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학문체계를 정립하려면 성경을 비롯한 경건서적을 읽고 더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회에서 신앙교육도 받아야 하고, 소그룹활동을 통하여 전도와 봉사에도 참여해야 한다. 우리 대학부만 해도 국립의료원 전도팀, 교아원, 청소년 공부방 등 여러 사역팀이 있다.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서 효과적인 선교의 기회를 갖고 있어서, 대학부에서도 구로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봉사와 선교를 담당하기로 했다. 10만명이 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여 본국으로 다시 파송(?)한다면 그야말로 경제적인 선교가 되는 셈이다. 대학은 6월말로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방학 중에는 본격적인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어느 날 한 여학생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딜?” “거기요...” “거기가 어디데?” “외국인 노동자들 일하는 데 있잖아요” 부모님 도와서 집안 일 거들어야 하고, 학교 공부해야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도 열심히 벌어야 겨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갈려고 해?” “지금 선교사로 못나가서 미안한데 온 사람들이라도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잘 키우셨다. 부모님께서도 잘 양육하셨고, 충현교회에서도 신앙교육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상 위에는 “힘내세요!”라고 몰래 메모해 둔 학생, “더욱 건강하세요” 카드와 함께 영양제 한통 들고온 학생들을 대하면서 그저 부끄럽고 미안하기만 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했던 오래 전 그 기억이 다시 새롭게 다가온다.

레크레이션 지도자 강습회 실시

각 교회학교에서 교사 2명씩 참가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올바른 기독교 놀이 문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레크레이션 지도자를 양성하여 각 부서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각 교회학교에서 교사 2명씩을 훈련시키기로 했다.

이 훈련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교육관 514호에서 실시하는데 레크레이션의 기본이론, 상어물과 울돌, 게임(실내, 실외)과 프로그램 지정법, 이벤트와 행사장 연출 등을 강의 및 실습 등으로 훈련하게 된다.

강사는 전승훈 집사(청년1부 교사)와 다수. 지난 6월 25일(토) 시작하여 앞으로 5주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팜, 사이판 유선방송(GSCC)에 비디오 테이프 공급

우리 교회, 주일예배 및 수요일예배 실행

교회는 팜, 사이판 크리스찬 유선방송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교회의 매 주일예배 및 수요일예배 실행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공급하기로 했다.

팜, 사이판 크리스찬 유선방송에서는 이 테이프를 유선방송국을 통해 북마리아나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 사는 조선족, 지역민, 한국인교포, 필리핀인, 일본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방영하게 된다.

강도사 고시 합격

김필수, 이준우전도사

우리 교회 김필수 전도사(초등1부)와 이준우 전도사(에바다부 지도)가 강도사고시에 합격했다. 두 전도사는 10월 가을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된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6일(주일) - 28일(화) 평택화북교회 부흥회 인도,
7월 1일(금) 농어촌 교역자 초청 세미나 종강예배 설교,
2일(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장립식 및 부흥회설교
· 신성종 목사님 : 27일(월) 민자당 기독교회 조찬기도회 설교,
28일(화) 강남구 교경협의회 오찬기도회 설교,
농어촌교역자 초청 세미나 개강예배 설교 및 특강,
30일(목) 연세대연합신학원주최 하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특강
2. 예수사랑 큰찬치를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총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태신자를 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발송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3. 길림성 기독교신학원의 설립과 제2교육관 건축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4. 남북정상회담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가득찬 죄악들과 우상을 물리치며 한국교회에 회개의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사 한반도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5.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인 자라이트 남마주이 교회당의 건축과, 아프리카의 무슬렘선교와, 이집트로 이주한 수단인의 선교와, 수단인 선교사들의 영적 성장과, 이집트 한인교회와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할 렐루야! 몸되신 교회에 세계선교의 은혜와 비전으로 채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강건하시며 평안하신지요? 총현교회에서는 당회장 목사님의 선교적 의지 아래 온 교회가 선교 열기로 더욱 가득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본교회의 열기가 선교지에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5월 14일은 저희 가정의 교회의 명을 받고 안식년 후임사역을 위해 수리남에 온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일 은혜를 주시면서 사역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차기 사역을 위해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 안식년 선교사님과 필요한 협의를 나누면서, 이곳에서 한인과 현지인 사역을 재정비하여 7월부터 재개될 차기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정된대로 7월 말 서울에 도착하려 합니다. 도착 후 당회장님과 선교위원장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과 사역에 관해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선교보고 이후 수리남선교부는 은혜 중 현지인, 한인사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6일에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호응으로 이곳 현지인 교회의 외부 간판을 교회 정문 옆에 세웠습니다. 종전까지 한인교회 간판만 있어서 현지인사역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화란어 사용자'를 위한 '장로교회'라고 명시되어 현지인들의 전도와 교회인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주일에는 한인들의 학습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현지인세례는 안선교사님이 오신 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곳 한인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초신자들인데 이번엔 학습을 받은 5명, 세례를 받은 2명의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가 요청됩니다.

4월 24일 주일은 수리남선교부가 소재한 한인교회가 설립된지 2주년이 된 날로서 한인성도들과 함께 설립기념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현지인들은 성경암송대회를 가졌는데 이런 대회를 가져보지 못했던 현지인 성도들은 몇달 동안 외우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교회 나온지 두달도 안되는 라카르도, 사브리나 라는 가이아나 출신 부부가 1등과 3등을 차지하여 놀라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있는 현지인 토요성경공부반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현지인 교인들 중 비교



6월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장년 새신자는 25명이며 새신자 주일출석률은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현지

언어도 습득하면서 많은 후임사역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되니 이제 다시 인계를 앞두고 되었습니다. 1년간의 단기사역에는 사역자체 기간에 비해 사역을 위한 준비가 너무 큰 비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단기사역 파송 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가정이 후임사역을 위해 서울을 출발한 이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신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과 선교위원장님, 선교위원들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던 총현의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께 그동안의 사역의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랑의 빛을 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의 서신을 주셨으나 일일이 답해 드리지 못한 것도 서울에 가서 뵙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는 이 기간 1년이 너무 큰 은혜와 훈련의 기회가 되었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아내(유은선), 그리고 아들(준영) 3식구가 적도의 더위 속에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도님들의 기도덕인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수리남선교부는 역사가 아직 짧고 규모도 크지 않지만 한인과 현지인사역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적으로 현재 한인교회는 이미 현지법인을 취득하여 교회사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현지인 사역에 필요한 재반활동에 지장이 예상되어 작년 6월 안선교사님과 함께 종합적인 선교법안을 신청하여 그 서류는 작년 9월 이 나라 법무성을 통과하여 해당 행정기관을 순회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결재까지는 앞으로도 시일을 좀더 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조속한 허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리남선교부는 안식년선교사님께서 총현의 힘으로 제2기 사역을 시작하시면 큰 가속이 붙어 은혜 중 놀라게 진행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총현에서 파송하고 있는 남미의 유일한 선교지인 수리남으로부터 내실있는 선교가 더욱 불붙어서 미신적 카톨릭과 혼합종교로 종교전시장을 이루고 있는 남미지역에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에 바탕을 둔 건실한 복음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도하면서, 세계선교의 대장이시며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살롬!

수리남에서 김 창 수 목사

◆ 수리남선교부 / 김 창 수 목사 ◆

미신적 카톨릭과 혼합종교로 종교전시장을 이루고 있는 남미지역에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에 바탕 둔 건실한 복음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적 영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과 가이아나 출신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네비게이트선교회 출판 '제자도 연구'를 사용하는데(한인 성경공부반과 같은 교재임) 실천적인 제자도를 익혀가는 데 효과적이며 반응도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 영어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찾던 중 이 나라 성서공회에 가서 킹 제임스역 성경을 20권 살 수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인성도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비롯하여 수요일사도행전공부, '제자의 도' 성경공부, 구역예배, 그리고 세례기도와 심야기도훈련 등을 기본적인 신앙훈련과 양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5월 27일에는 성경강림주간 금요일을 맞아 밤 10시에 성도들이 모여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민 사회의 특징인 단일한 생활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뿌리 내리기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말씀 사역이 꾸준히 계속될 때 개개인 교인들의 더 많은 변화와 성숙도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어업기지의 선원들의 경우 예전에 숫적, 양적으로 활발하던 때와는 달리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기지에 귀향해 있는 선원들 중에서 한인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경우 안선교사님이 사행하시던 사역의 틀 안에서 기본사역이 진행되어 왔고 새신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들을 통한 현지인 선교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일 현지인집회 때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설교하여 왔는데 6월말이면 요한복음강해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봉사를 위한 현지인 학생아학반은 3명의 현지인교사들의 협력을 받으며 4-7월 학기가 계속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 서민들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1년 사이 5배 정도를 치솟은 물가교에 수입이 따르지 못해 기본 의식주가 위협을 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던 배급도 중단되어 가고, 얼마전 신문에는 유유를 살 수 없어 굶어 죽은 이 나라 어린이 몇명의 사진이 실리면서 크게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외국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구심점이 없는 다민족 혼합국가인 이 나라 위장자들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국가기강과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한 부패하고 비능률적인 현 체제에서는 희망스러운 전망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의 환경과 현상이 되는 이 나라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년동안 위도 6도의 남미 적도지역인 이곳의 기후와 문화에 적응하고, 사역에 필요한 노동허가와 체류허가 취득에 소요되었던 8개월 동안 긴 행정절차를 뚫으며, 현지